

제 1 교시

국어 영역(A형)

1

[1 ~ 2] 다음은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지난주에 우리 함께 ○○산을 등반했었는데, 정상으로 가는 길 곳곳에 자라고 있던 야생 버섯들 기억하시나요? 몇몇 친구들이 화려한 색이 아니니 먹어도 되겠다면서 그 버섯을 따려고 하자 선생님께서 위험하다며 말리셨지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그러한 행동이 왜 위험한지에 대해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 알고자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버섯은 5,000여 종으로 추정되지만 학계에 보고된 것은 약 1,600종뿐입니다. 이 중 식용 버섯은 350여 종, 독버섯은 90여 종이며 나머지는 식용 버섯인지 독버섯인지조차 밝혀지지 않았습니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독버섯으로 알고 계세요? 일단 화려한 색의 버섯이 독버섯이라고 많이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화려한 색이 아니니 괜찮다고 생각하고 버섯을 먹는 것은 위험합니다. 독버섯의 화려한 색이 환경에 따라 일반적인 버섯의 색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야생 독버섯인 ‘독우산광대버섯’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먹는 양송이 버섯과 색, 모양이 유사합니다.

또 버섯의 갓이 세로로 찢어지면 먹을 수 있다고 흔히들 알고 계시지요? 이 또한 잘못된 상식입니다. 제가 어떤 책에서 보았는데 독버섯도 세로로 찢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버섯뿐만 아니라 야생 동물들도 우리에게 위협을 주는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발표 내용을 정리하자면, 야생 독버섯은 환경에 따라 색을 달리할 수 있고, 세로로 찢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식용 버섯과 매우 흡사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인이 자신의 상식만 믿고 야생 버섯을 먹었다가는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왜 야생 버섯을 집에 가져가서 먹으면 안 되는지 이제 아시겠지요? 야생 독버섯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버섯을 함부로 채취해 먹지 마시길 바랍니다.

1. 다음은 학생이 발표 전에 세운 계획이다. 발표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 도입

- 청중들의 공통적 경험을 들어 발표에 흥미를 유발함. … ①
- 발표 내용과 관련된 청중들의 인식이 부족함을 들어 발표의 중요성을 부각함.

○ 전개

- 관련된 수치를 들어 발표에 객관성을 부여함.
- 일반적으로 알려진 상식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함. ……… ②
- 청중들에게 질문을 던져 발표 내용을 이해했는지를 확인함. … ③
- 발표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구체적인 예를 제시함. … ④

○ 정리

- 발표 내용을 요약함.
- 발표 내용과 관련하여 청중들에게 당부하는 말을 덧붙임. … ⑤

2. 위 발표에 대한 평가 과정에서 제기한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식용 버섯과 독버섯을 일반인이 쉽게 구별할 수 없는 이유를 제시했다면 청중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 ② 독버섯을 먹으면 어떤 위험한 증상이 나타나는지 알았다면 청중들의 경각심을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요?
- ③ 전체 내용과 연관성이 떨어지니 ‘야생 동물’과 관련된 이야기는 제시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요?
- ④ 어떤 책에서 본 내용인지 그 출처를 밝혔다면 발표 내용의 신뢰성을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요?
- ⑤ 독버섯과 식용 버섯의 사진을 시각 자료로 제시했다면 청중들의 이해도를 더 높일 수 있지 않았을까요?

3. ㉠~㉣을 통해 알 수 있는 ‘구두 언어’의 특성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철민: 영화야, 이것 좀 볼래? (교지를 펼치며) 네가 교지에 썼던 글인데.....

영희: ㉠ 아, 지금 네가 가리키고 있는 그 구절 말이구나. 응, 무슨 일이야?

철민: 내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말이야. 일단 ‘디아스포라’가 어디에서 유래한 말이야? 유태인과 관련된 말이었는 것 같은데.....

영희: ㉡ 유태인과 관련된 것이 맞아. 요즘은 좀 다르지만.

철민: 그렇다면 요즘에는 어떠한 의미로 쓰이는 거야? ‘코리안 디아스포라’라는 말도 들어본 것 같은데.

영희: ㉢ 응, 맞아. 그 말은 전쟁 때문에 한반도를 떠난 한국인들을 뜻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요즘에는 꼭 유태인이 아니더라도 타의에 의해 자신이 속해 있던 공동체를 떠나야 했던 사람들을 의미하는 말로 쓰이고 있지.

철민: ㉣ (고개를 끄덕이며) 너를 직접 만나 설명을 들으니 이해가 잘되네. 설명해 줘서 고마워.

영희: 고맙긴. 참, 우리 다음 주에 영화 보러 가기로 했지? 그럼 그날 보자. 그때까지 잘 지내.

철민: ㉤ 그래, 너도.

- ① ㉠: 대화 상대방과 시간적, 공간적 상황을 공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 대화 상대방의 말을 받아 더 상세하게 표현할 수 있다.
- ③ ㉢: 대화 상대방과 즉각적으로 상호 작용을 할 수 있다.
- ④ ㉣: 비언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의 의사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 ⑤ ㉤: 대화의 맥락을 통해 알 수 있는 정보나 문장 성분을 생략할 수 있다.

[4~5] 다음은 라디오 상담 프로그램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상담자: 다음으로 상담하실 분이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민수: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수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친구와 다툼 일로 상담을 하려고요.

상담자: ㉠ 고등학생이시죠? 친구 관계로 고민이 많으신가 보군요.

민수: 네, 아파서 시험을 잘 못 본 은선이라는 친구가 우울해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프니까 시험을 못 본 것은 당연한데 왜 우울해 하나며, 나 같으면 우울해 할 시간에 공부를 더 하겠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친구가 심하게 화를 내더군요. 앞으로 잘되라는 뜻으로 한 말인데, 제가 대체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요? ㉡ 친구를 만나 이야기기를 나누며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요.

상담자: 나쁜 의도로 한 말은 아닌데, 친구가 화를 내서 속상

했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저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종종 말하는 사람의 의도와 다르게 말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수: ㉢ 제 말이 의도와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상담자: 그렇지요. ㉣ 따라서 민수 님의 충고가 친구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보다 따뜻한 위로의 말이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요.

민수: 그렇다면 어떻게 말하는 것이 좋을까요?

상담자: 우선,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비판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문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고 격려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열 수 있겠지요. [A]

민수: 그렇군요. 제가 생각이 짧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친구에게 우선 사과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제가 할머니 댁에 와 있어서 친구를 만날 수가 없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상담자: ㉤ 우선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 사과를 하면 친구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민수: 네, 상담 감사합니다.

4.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라디오 상담이라는 공적인 말하기 상황을 고려하여 높임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 ② ㉡: 대인 관계에서 발생한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고자 함을 드러내고 있다.
- ③ ㉢: 대화 상대방이 한 말을 반복하여 상대가 한 말의 의미를 확인하고 있다.
- ④ ㉣: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드러냄으로써 대인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음을 조언하고 있다.
- ⑤ ㉤: 먼 대 먼 상황이 아니라도 상황에 맞게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리고 있다.

5. [A]를 참고할 때, ‘민수’가 ‘은선’에게 했어야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은선아, 아프면 누구나 시험공부를 열심히 할 수가 없어. 시험 성적이 좋지 않다고 너무 자책하지 마.
- ② 은선아, 아파도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 성적이 좋지 않아 속상하겠네. 몸이 회복되면 다음 시험은 분명히 잘 볼 수 있을 거야.
- ③ 은선아, 요즘 너를 보면 체력이 많이 달리는 것 같은데 점심 시간마다 운동을 하면 어때? 나도 요즘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거든.
- ④ 은선아, 속상하지? 그래도 너는 늘 나보다 시험을 잘 보잖아. 아마 이번에도 나보다 성적이 더 좋을 거야. 그러니까 나를 생각해서라도 우울해 하지 않았으면 해.
- ⑤ 은선아, 아파서 시험 준비를 제대로 못해 많이 우울하겠네. 너는 우리 반에서 가장 성적이 좋은 아이인데 이 상황이 얼마나 힘들겠니? 네 마음 충분히 알 것 같아.

6. 다음은 재환이가 동아리 홈페이지에 게시한 글과 동아리 구성원의 댓글이다. 재환이의 글에 비추어 볼 때, 댓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과학 동아리 부장 김재환입니다.

동아리 담당 선생님께서 우리 동아리 활동과 관련지어 천문대 견학 정보를 제공하는 글을 써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또 별자리 관측 방법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시하라고 하셨고요. 우리 학교 학생 대부분이 천문학을 비롯한 과학 관련 지식이 별로 없으니 그 부분을 고려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 글은 우리 학교 홈페이지에 올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의견 주세요.

댓글

↳ 진아 글의 성격을 고려한다면 천문대 위치와 가는 방법, 이용 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하는 것이 좋겠어. ㉠

↳ 민재 예상 독자 대부분이 천문학적 지식이 부족하다고 하니 별자리 관측 방법에 대해 쉬운 용어로 서술하는 것이 좋겠어. ㉡

↳ 소정 글이 홈페이지에 올려진다는 것을 고려할 때 별자리 관측과 관련된 사진이나 동영상 첨부하면 내용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야. ㉢

↳ 은지 동아리 활동과 관련지어 달라는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난겨울 소백산 천문대에 견학 갔던 경험을 서술하면 될 거야. ㉣

↳ 영수 글의 목적을 살리기 위해서는 동아리의 구성원을 소개하고, 가입 요건을 강조하여 서술하면 되겠지. ㉤

- ① ㉠ ② ㉡ ③ ㉢ ④ ㉣ ⑤ ㉤

[7~8]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작문 과제]

‘시간 관리’에 대해 써 보자.

[과제의 초고]

시간을 잘 관리하는 사람은 서두르지 않으면서도 늦는 법이 없다. 시간의 주인으로 살기 때문이다. 반면, 시간을 잘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은 잡다한 일로 늘 바쁘지만 놓치는 것이 많다. 시간에 묶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

㉠ 하지만 이 말이 일본일초의 여유도 없이 빡빡하게 살라는 말은 아니다. 주어진 순간순간을 밀도 있게 사는 것은 중요하다. 우리는 목표를 정하고 부수적인 것들을 정리하면서 삶의 곳곳에 비는 시간을 ㉡ 만들어져야 한다. 자동차와 빌딩으로 가득한 도시에 공원이 필요하듯 우리의 시간에도 여백이 필요한 것이다.

조금은 비워 두고 무엇이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여백은 우리 삶에서 꼭 필요하다. ㉢ 인생의 기쁨은 자존감에 바탕을 둔 배려심에서 나온다. 목표를 향해 가면서 우리는 예상치 못한 일에 ㉣ 맞닥뜨릴 수 있다. 그러한 뜻밖의 상황에서 시간의 여백이 없다면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목표와 방향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 ㉤ 그러므로 시간의 여백을 만드는 것은 현명한 삶을 위한 최고의 시간 관리라 할 수 있다.

7. ‘과제의 초고’에서 글쓴이가 활용한 글쓰기 방법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보 기 >

ㄱ. 대조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며 글을 시작한다.

ㄴ. 시간적 순서에 따라 개인적인 경험을 제시하여 글의 전달 효과를 높인다.

ㄷ. 유사한 상황에 빗대어 내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ㄹ. 객관적 사실을 나열한 후 간략하게 의견을 덧붙여 글을 마무리한다.

- ① ㄱ, ㄷ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8. ㉠~㉤에 대한 수정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문맥을 고려하여 뒷문장과 순서를 바꾸는 것이 좋겠어.
② ㉡: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을 고려하여 ‘만들어져’로 고치는 것이 좋겠어.
③ ㉢: 글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삭제하는 것이 좋겠어.
④ ㉣: 맞춤법을 고려하여 ‘맞닥뜨릴’로 수정하는 것이 좋겠어.
⑤ ㉤: 문장의 연결 관계를 고려하여 ‘또한’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어.

[9~1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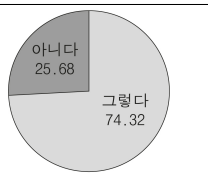
(가) 신문기사

‘표절’은 의도적인 것은 물론이고 의도하지 않은 베끼기, 출처 미표기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학문 발전 및 공동체 윤리를 저해한다. 연구윤리정보센터의 ○○○ 씨는 ‘다른 사람이 써 놓은 글을 표절하는 것은 물건을 훔치는 것과 같은 범죄’라면서, 학생들이 표절인 걸 알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태도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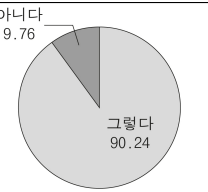
(나) 설문조사

설문 대상: A 대학교 학생 331명 (단위: %)

1. 다른 사람의 자료를 인용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경험이 있는가?



2. 다른 사람의 자료를 인용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으면 표절이라고 생각하는가?



(다) 연구 자료

B 대학교 학생 42명을 대상으로 표절 검사 시스템의 효과 검증 연구가 이루어졌다. 연구자는 학생들에게 1차, 2차 과제물을 차례로 부여하였다. 과제물의 성격은 같으며 과제 작성 기간도 1주일로 동일하다. 1차 과제물을 부여할 때는 아무런 공지도 하지 않았으며, 2차 과제물을 부여할 때는 표절 검사를 실시할 것임을 공지하였다. 과제물 수합 후 표절 검사 시스템을 통해 각각의 표절 여부를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시스템을 통한 표절 검사 결과 비교]

일치성 비율	1차 과제물	2차 과제물
10 % 미만	24	31
10 % 이상 ~ 20 % 미만	6	10
20 % 이상 ~ 30 % 미만	7	1
30 % 이상	5	0

(이 검사에서는 일치성 비율이 20 % 이상일 경우 표절에 해당함.)

9. ‘대학생들의 표절 문제와 그 해결 방안’에 대해 글을 쓰려고 한다. 자료의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가)를 활용하여 표절의 개념과 해결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② (나) - 1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표절 실태를 제시한다.
 ③ (다)를 활용하여 표절 검사 시스템의 도입이 표절 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

- ④ (가)와 (나)를 활용하여 표절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과 실제 행동에 큰 차이가 있음을 지적한다.

- ⑤ (나) - 2와 (다)를 활용하여 표절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이 부족한 이유를 제시한다.

10. 글쓰기 윤리를 준수하도록 권고하기 위해 <조건>에 따라 홍보 문구를 작성하였다. 가장 적절한 것은?

< 조 건 >

- (가)에서 제기한 문제의식을 드러낼 것.
 ○ 대구법을 사용할 것.

- ① 알고 해도 도둑질이고 모르고 해도 도둑질입니다. 당신과 사회를 좀먹는 표절, 이제 당신의 마음에서 추방하세요.
 ② 하루빨리 도입하세요. 표절 검사 시스템으로 우리 모두의 양심이, 우리 사회의 정의가 지켜집니다.
 ③ 표절, 후회할 땐 너무 늦습니다. 표절, 따옴표 하나로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④ 몰랐다고 해도 피할 수 없어요. 꼼꼼히 살펴보고 하나도 놓치지 마세요.
 ⑤ 아무도 모르겠지? 당신의 양심도 모르고 있습니까?

11. <보기>를 참고하여 철수에게 해 줄 수 있는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 국어의 단모음 체계

혀의 최고점 위치 입술의 모양	전설 모음		후설 모음	
	평순	원순	평순	원순
혀의 높이(입의 개폐)				
고모음(폐모음)	ㅣ	ㄱ	ㅡ	ㅜ
중모음(반개모음)	ㅑ	ㅓ	ㅕ	ㅗ
저모음(개모음)	ㅗ	ㅛ	ㅜ	ㅟ

철수: 영화야, 난 ‘게’와 ‘개’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발음할 수 있니? 난 잘 안 돼서 말할 때마다 머뭇거리게 돼. 어떻게 하면 좋을까?

- ① ‘개’를 발음할 때는 ‘게’와 달리 입술을 둥그렇게 오므려야 해.
 ② ‘개’를 발음할 때는 ‘게’에 비해 입을 더 크게 벌려서 혀의 높이를 낮추어야 해.
 ③ ‘게’를 발음할 때는 ‘개’와 달리 소리 내는 동안 입술과 혀를 움직이지 말아야 해.
 ④ ‘개’를 발음할 때는 ‘게’에 비해 입술을 더 평평하게 하고 입을 조금만 벌려야 해.
 ⑤ ‘게’를 발음할 때는 ‘개’와 달리 혀의 최고점이 앞쪽에 있다는 느낌으로 발음해야 해.

- 12 <보기>는 단어의 의미 관계에 관한 수업 자료의 일부이다.
<보기>에서 이끌어 낼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 유의 관계에 있는 ‘기르다’, ‘키우다’, ‘먹이다’의 쓰임 비교
(두 단어가 결합 가능하면 ○, 그렇지 않으면 ×)

	기르다	키우다	먹이다
돼지를	○	○	○
감나무를	○	○	×
인내심을	○	○	×
수업을	○	×	×
첨단산업을	×	○	×

- ① ㉠의 경우 ‘기르다’, ‘키우다’, ‘먹이다’는 모두 ‘사육하다’를 대신해 쓸 수 있다.
② ㉡의 경우 ‘기르다’와 ‘키우다’는 ‘재배하다’를 대신해 쓸 수 있다.
③ ㉢과 ㉣를 보면 ‘키우다’는 ‘기르다’, ‘먹이다’와 달리 추상적인 의미를 지닌 말과 결합하여 쓸 수 있다.
④ ㉠의 경우 ‘기르다’는 ‘깎다’와 반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⑤ ㉠~㉣를 보면 ‘기르다’는 ‘먹이다’에 비해 ‘키우다’와 더 많은 상황에서 서로 바꾸어 쓸 수 있다.

- 13 <보기>의 ‘뜨개질’과 단어의 구조가 동일한 것은?

< 보 기 >

‘뜨개질’의 형태소를 분석해 보면 ‘어근 + 접미사 + 접미사’의 구조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구성 요소는 동일한 층위에서 결합된 것이 아니라 계층적으로 결합된 것이다. 즉, 어근 ‘뜨-’에 접미사 ‘-개’가 붙어 먼저 ‘뜨개’가 만들어지고, 여기에 다시 접미사 ‘-질’이 붙어 ‘뜨개질’이 된 것이다. 따라서 ‘뜨개질’은 ‘(어근 + 접미사) + 접미사’의 구조로 된 파생어이다.

- ① 싸움꾼 ② 군것질 ③ 놀이터
④ 병마개 ⑤ 미닫이

- 14 <보기>를 바탕으로 ‘주어’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지난 토요일에 ㉠ 사촌 동생이 왔다. 뭘 할까 고민하다 ㉡ 사촌 동생에게 미술관에 가자고 했다. ㉢ 지하철이 있었지만, 한 정거장이라 걸어가기로 했다. 재미있게 놀다 오라고 하시며 ㉣ 어머니께서 용돈을 주셨다. 걷다 생각해 보니, ㉤ 우리가 함께 노는 것도 오랜만이였다. 다들 바빠서인지 ㉥ 친척도 서로 만나기가 쉽지 않은 듯하다.

- ① ㉠, ㉡, ㉢을 보니, 주어는 ‘무엇이 어찌한다/어떠하다’에서 ‘무엇이’에 해당하는군.
② ㉠과 ㉡을 비교해 보니, 서술어의 자릿수에 따라 주격 조사의 형태가 달라지는군.
③ ㉢을 보니, 문맥상 주어를 분명히 알 수 있을 경우에는 주어 생략되기도 하는군.
④ ㉣과 ㉤을 비교해 보니, 자음 뒤에서는 ‘이’, 모음 뒤에서는 ‘가’가 주격 조사로 쓰이는군.
⑤ ㉤을 보니, 체언뿐 아니라 명사절도 주어라 될 수 있군.

- 15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간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시제와 동작상이 있다. 시제는 화자가 말하는 시점인 발화시와 동작이나 사건이 일어나는 시점인 사건시의 관계에 따라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로 나뉜다. 동작상은 발화시를 기준으로 동작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것인데, 동작이 진행되고 있음을 표현하는 진행상과 동작이 이미 완결되었음을 표현하는 완료상이 있다.

어머니: 방 정리를 ㉠ 하고 있구나.
아들: 네. 필요 없는 물건은 다 ㉡ 내놓았어요.
어머니: 잘 했구나. 그런데 얼마 전에 ㉢ 산 책은 어디 있니?
아들: 아, 그 책은 이미 다 읽어서 동생에게 ㉣ 줘 버렸어요.
어머니: 그래 잘 했다. 아참, 오늘 네 친구가 오기로 했지.
아들: 네. 조금 있다 저하고 같이 ㉤ 공부할 친구가 오기로 했어요.
어머니: 그래. 깨끗한 방에서 친구랑 재미있게 놀면 되겠구나.

- ① ㉠: ‘-고 있구나’는 동작이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② ㉡: ‘-았-’은 사건시가 발화시에 앞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③ ㉢: ‘-ㄴ’은 발화시가 사건시에 앞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④ ㉣: ‘-어 버렸어요’는 동작이 이미 완결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⑤ ㉤: ‘-ㄴ’은 발화시가 사건시에 앞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16~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인간의 삶에서 고통의 의미를 찾기 위한 질문은 계속되어 왔다. 이에 대한 철학적 해답으로 대표적인 것이 바로 변신론(辯神論)이다. 변신론이란 무고한 자의 고통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이 정의로우심을 보여주어야 하는 논리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고통은 선을 더 두드러지게 하고 더 큰 선에 기여하므로, 부분으로서의 고통은 전체로서는 선이 된다. 응보론적 관점에서 고통을 죄의 대가로 보거나, 종교적 관점에서 고통이 영혼의 성숙을 위한 시련이라고 보는 설명들도 모두 넓게는 변신론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레비나스는 20세기까지 사람들을 지배해 온 변신론적 사고가 두 차례의 세계 대전, 아우슈비츠 대학살 등 비극적인 사건들로 인해 경험적으로 이미 그 설득력을 잃었다고 본다. 죄 없는 수백만 명이 학살당하는 처참한 현실 앞에서, 선을 위한다는 논리로 고통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 그는 의문을 제기한다. 그가 보기에 고통은 고통 그 자체로는 어떠한 쓸모도 없는 부정적인 것이며 고독한 경험에 불과하다.

이에 레비나스는 고통으로부터 주체의 새로운 가능성을 포착해 낸다. 그에 따르면, 일차적으로 인간은 음식, 공기, 잠, 노동, 이념 등을 즐기고 누리는 즉 '향유'하는 주체이다. 음식을 먹고 음악을 즐길 때 향유의 주체는 아무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존재한다. 레비나스는 이 같은 존재의 틀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는가에 관심이 있었으며, 개별적 존재의 견고한 웅벽에 틈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을 고통에서 발견한다. 고통 받는 자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으로 인해 자연히 신음하고 울부짖게 되는데, 여기서 타인의 도움에 대한 근원적 요청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요청에 응답하여 그 사람을 위해 자신의 향유를 포기할 때, 비로소 타인에 대한 관계, 즉 인간 상호 간의 윤리적 전망이 열리게 된다. 이를 통해 인간은 '향유의 주체'를 넘어 타인을 향한 '책임의 주체'로 전환될 수 있다.

고통 받는 자가 '외부의 폭력'에 무력하게 노출된 채 나에게 도덕적 호소력으로 다가오는 윤리적 사건을 레비나스는 '타인의 얼굴'이라고 부른다. '타인의 얼굴'은 존재 자체를 통해 나에게 호소하고 윤리적 의무를 일깨운다. 나는 이러한 의무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를 '환대'해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타인에 대한 나의 이성적 판단이 아니라 감성이다. 타인의 호소에 직접 노출되어 흔들리고 영향을 받는 것은 감성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바로 이곳이 레비나스의 윤리학이 기존의 이성 중심의 윤리학과 구분되는 지점이 된다.

16.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변신론에 따르면 고통은 선에 기여한다.
- ② 레비나스의 윤리학에서는 감성의 역할을 중시한다.
- ③ 응보론적 관점에서는 고통을 죄의 대가로 이해한다.
- ④ 레비나스는 개별적인 존재로서 자립할 것을 주장한다.
- ⑤ 레비나스는 변신론적 사고가 설득력을 잃었다고 본다.

17. <보기>를 활용해 레비나스의 견해를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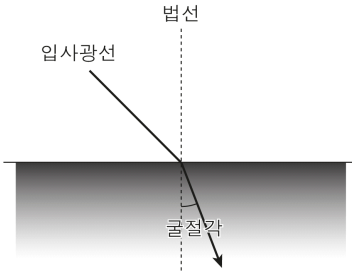
< 보 기 >

A 학생은 한겨울 밤 귀갓길에 극심한 추위에 떨고 있는 노숙인과 마주쳤다. A는 홀겁의 옷만을 걸친 노숙인에게 몹시 안타까움을 느껴, 입고 있던 외투를 그에게 벗어 주고 추위에 떨면서 집으로 돌아왔다.

- ① 노숙인이 느낀 추위 자체는 '부정적이며 고독한 경험'이다.
- ② A는 도덕적 호소로 다가오는 '타인의 얼굴'에 직면한 것이다.
- ③ A는 '외부의 폭력'에 노출되어 '흔들리고 영향을 받은' 것이다.
- ④ A가 입고 있던 외투는 A가 '즐기고 누리던' 대상이다.
- ⑤ A는 노숙인의 고통이 일깨우는 윤리적 의무를 기꺼이 받아 들여 그를 '환대'한 것이다.

[18~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빛이 어떤 물질을 통과하는 것을 투과라 한다. 오른쪽의 그림처럼 빛이 한 매질로부터 다른 매질로 들어갈 경우 빛은 입사광선과 입사점의 경계면에서 수직으로 세운 법선을 기준으로 꺾이게 되는데, 이를 굴절이라 한다. 이때 빛은 밀도가 작은 매질에서 큰 매질로 투과할 때는 감속하며 법선 쪽으로 꺾이지만, 밀도가 큰 매질에서 작은 매질로 투과할 때에는 반대 방향으로 꺾인다. 대기권의 밀도가 우주 공간보다 크기 때문에 빛이 대기권에 진입할 때는 대기권 안으로 꺾여 들어온다. 이를 통해 여러 가지 자연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우선, 밤에 보이는 별은 실제보다 높은 고도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지구 대기는 지표면에 가까울수록 그 위에 있는 상층 대기의 무게에 의해 압축되기 때문에, ① 지표면에 가까워질수록 빛이 굴절되는 정도는 커지게 된다. 이런 이유로 별빛은 지구 대기의 아래로 내려올수록 그 경로가 더 꺾이게 된다. 하지만 사람의 눈은 빛이 굴절되는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별빛이 어떤 방향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보이면, 별도 그 방향에 있는 것으로 인지하게 된다. 그래서 지상의 관측자는 별빛이 대기층에 들어올 때의 고도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것처럼 별을 보게 되는 것이다. 굴절의 정도는 별의 위치가 지평선에 가까울수록 커져서, 수평 방향으로 들어오는 별빛의 경우에는 굴절각이 약 0.6°에 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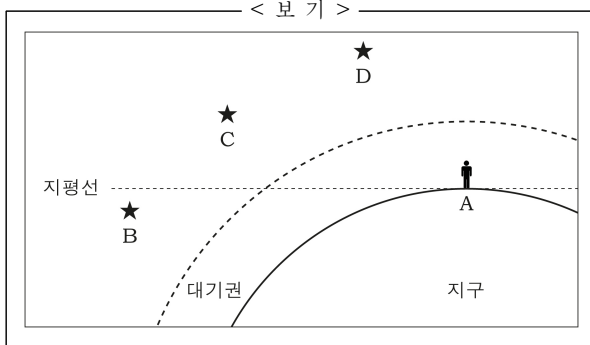
같은 원리로 태양도 실제보다 일찍 뜨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태양이 지평선과 이루는 각도가 4°일 때는 90°일 때보다 태양 빛은 12배나 더 두꺼운 대기층을 통과하게 되어, 일출 때 태양 빛의 굴절은 최대가 된다. 태양의 중심이 지평선을 통과하는 때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대략 2분 정도 더 빨리 뜨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반대로 일몰 때는 2분 정도 더 늦게 지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또한 일정한 밝기로 빛나는 별은 대기권에서의 빛의 굴절로 인해 우리 눈에는 반짝이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빛은 밀도 차가 있는 대기층의 경계면에서 굴절해서 입사하지만, 각각의 대기층에서도 대기 상태가 안정되지 못하면 대기의 밀도가 고르지 못하게 되어 별빛은 지속적으로 상하좌우로 굴절되는데, 이러한 이유로 별이 일정하게 은은히 빛나지 못하고 계속 깜박거리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바람이 부는 날일수록 별이 더 반짝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18. 윗글의 집필 의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학적 원리를 통해 자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 ② 통용되고 있는 이론의 타당성을 실험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 ③ 이론과 실제 현상의 차이를 객관적으로 비교·분석하기 위해
- ④ 다양한 이론들 간의 상호 영향 관계를 밝혀 특정 이론의 우수성을 부각하기 위해
- ⑤ 기존의 과학적 견해가 새로운 견해에 의해 대체되면서 과학이 발전한다는 것을 제시하기 위해

19. 윗글과 <보기>를 관련지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관측자 A가 대기권을 벗어난다면 지구에서보다 정확하게 별 C나 별 D의 방향을 인지할 수 있겠군.
- ② 별 B가 지평선 아래로 0.6° 를 더 내려가더라도 관측자 A에게 보이겠군.
- ③ 대기가 불안정할수록 별 C와 별 D는 더 반짝이는 것으로 보이겠군.
- ④ 별 C보다 별 D가 실제 방향에 더 가깝게 보이겠군.
- ⑤ 대기의 밀도가 더 커진다면 별 C와 별 D는 더 높은 고도에 있는 것으로 보이겠군.

20.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지구 표면에 가까울수록 지구 대기의 밀도는 커지기 때문에
- ② 지구 표면에서 멀어질수록 지구 대기가 안정되기 때문에
- ③ 지구 표면에 가까울수록 지구 대기의 밀도가 작아지기 때문에
- ④ 지구 표면의 대기 밀도가 작기 때문에
- ⑤ 지구 대기의 밀도가 변함없기 때문에

21. 다음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학생의 독서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얼마 전 뮤지컬 영화 ‘레미제라블’을 감동적으로 보고 난 후 빅토르 위고의 원작 소설을 읽게 되었다. 완역된 소설은 총 다섯 권으로 되어 있었다. 그래서 막상 책을 읽으려 하니 부담스러웠고, 시작부터 주인공 장발장이 아닌 미리엘 주교의 이야기가 나와 내용이 낯설게 느껴졌다. 나는 영화 장면들을 떠올리면서 그 주교가 주인공 장발장과 어떻게 연결될지, 그리고 사건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추측해 보았다.

나는 이 방대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우선 핵심적이라고 생각되는 사건들에 집중하며 읽어 나갔다. 그러나 프랑스 역사를 잘 모르는 나로서는 이 소설의 핵심 사건이나 인물들의 삶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1832년 6월 봉기가 일어나기까지의 역사 자료들을 찾아보게 되었다. 이를 통해 핵심 사건들이 6월 봉기와 어떻게 연결되며 인물들의 삶이 왜 그토록 비참해야 했는지, 작가가 이를 통해 보여주고자 한 바가 무엇이었는지 추론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자신을 희생했던 장발장의 삶에 큰 감동을 받았다. 그러나 현대 소설에서 보기 어려운 과도한 논평적 서술은 작품에 집중하는 데 방해가 되었고, 장발장의 삶을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자베르의 집요함과 테나르디에의 극악함은 과도한 설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소설을 읽고 난 후 나는 인류의 비참했던 역사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나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생각해 보았다. 이를 통해 장발장의 삶이 각박한 현대 사회에 주는 울림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달았으며, 그 울림이 지속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겠다고 결심하였다.

- ① 배경 지식을 활용하여 책의 내용을 추측하였다.
- ② 다른 책의 내용과 비교하여, 읽고 있는 책의 장단점을 파악하며 읽었다.
- ③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책의 내용을 이해하고 집필 의도를 추론하며 읽었다.
- ④ 서술 방식이나 인물 설정의 적합성에 대해 비판적으로 평가하며 읽었다.
- ⑤ 책의 내용을 내면화하면서 새로 얻게 된 깨달음의 실천 방안을 생각하였다.

[22~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영화에 제시되는 시각적 정보는 이미지 트랙에, 청각적 정보는 사운드 트랙에 ㉠ 실려 있다. 이 중 사운드 트랙에 담긴 영화 속 소리를 통틀어 영화 음향이라고 한다. 음향은 다양한 유형으로 존재하면서 영화의 장면을 적절히 표현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음향은 소리의 출처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화면 안에 음원이 있는 소리로서 주로 현장감을 높이는 소리를 ‘동시 음향’, 화면 밖에서 발생하여 보이지 않는 장면을 표현하는 소리를 ‘비동시 음향’이라고 한다. 한편 영화 속 현실에서는 발생할 수 없는 소리, 즉 배경 음악처럼 영화 밖에서 조작되어 들어온 소리를 ‘외재 음향’이라고 한다. 이와 달리 영화 속 현실에서 발생한 소리는 모두 ‘내재 음향’이다. 이러한 음향들은 감독의 표현 의도에 맞게 단독으로, 혹은 적절히 ㉡ 합쳐져 활용된다.

음향은 종종 인물의 생각이나 심리를 극적으로 제시하는 데 활용된다. 화면을 가득 채운 얼굴과 함께 인물의 목소리를 들려주면 인물의 속마음이 효과적으로 표현된다. 인물의 표정은 드러내지 않은 채 심장 소리만을 크게 들려줌으로써 인물의 불안정한 심정을 표현하는 예도 있다. 주인공의 심장이 요동치는 소리가 관객에게 그대로 들릴 때, 관객은 자신의 심장이 두근거리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된다.

의도적으로 소리를 없앨 수도 있다. 이른바 ‘데드 트랙(Dead Track)’은 강렬한 인상의 음향만큼 효과적이다. 갑자기 의도적으로 소리를 제거한 영상이 나올 때, 관객은 주의를 집중하여 화면을 더 자세히 보게 된다. 이로써 인물이 처한 상황에 ㉢ 빠져들게 되어 인물의 심리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

음향은 장면을 자연스럽게 잇는 접착제로도 쓰인다. 뒷장면이 제시될 때까지 앞장면의 소리를 지속시키거나 앞장면의 끝 부분부터 뒷장면의 음향을 미리 사용하면 장면 사이의 시간과 공간의 간극을 메울 수 있다. 장면과 장면의 소리가 ㉣ 겹쳐지게 할 수도 있다. 가령 아침에 알람 소리와 함께 시계로 손을 뻗는 인물의 모습을 제시한 후, 오후에 전화벨 소리와 함께 전화기로 손을 뻗는 동작을 보여주면 두 장면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영화의 화면이 누군가의 얼굴이라면 음향은 그 사람의 목소리이다. 목소리를 듣지 않고 표정만으로는 그 내면을 온전히 알기 어렵듯, 음향이 빠진 화면만으로는 관객이 그 화면에 담긴 내적 의미를 ㉤ 알기 어렵다. 이처럼 음향은 영화의 장면 및 줄거리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주제나 감독의 의도를 표현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22.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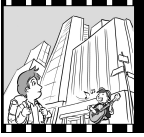
- ① 대상에 숨겨진 원리를 탐색하고 있다.
- ② 대상의 유형과 기능을 설명하고 있다.
- ③ 대상이 변화되어 온 양상을 기술하고 있다.
- ④ 대상의 개념을 제시하고 그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 ⑤ 대상의 다양한 속성을 분석한 후 서로 비교하고 있다.

23. 문맥상 ㉠~㉤를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수록(收錄)되어 ② ㉡: 결합(結合)되어
- ③ ㉢: 몰입(沒入)하게 ④ ㉣: 첨가(添加)되게
- ⑤ ㉤: 파악(把握)하기

※ <보기>를 읽고 24번과 2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 보 기 >






A
B
C
D

A	S#.21 △△시 A 빌딩 앞(낮) ○ ㉠ 거리의 약사가 부르는 낮선 노래가 들려오는 외국 도시에 첫사랑을 찾아 온 남자. ○ 빌딩을 올라다보며 그녀를 꼭 찾겠다는 결의에 찬 표정을 보인다.
B	S#.22 △△시 도심(낮) ○ ㉡ 옆에 걸어가 있는 두 사람의 목소리와 거리의 자동차들 소리, 그리고 알 수 없는 소음들이 뒤섞여 시끄러운 거리에 있는 남자. ○ ‘그녀가 아직도 나를 기억할까?’라는 생각에 몰두해 있다가 요란한 자동차 경적음에 깜짝 놀란다.
C	S#.23 ○○시 도심(낮) ○ 자동차 경적음으로 시끄러운, 또 다른 도시의 거리에 있는 남자. ○ 거리를 헤매다 순간 멈춰 서서 얼굴이 조금씩 일그러지기 시작하고, 점차 극도의 절망감을 드러낸다. 그리고 다시 힘없이 걸어간다.
D	S#.24 ○○시 도심(저녁) ○ 늦은 저녁, 축 처진 어깨로 한적한 횡단보도 앞에서 있는 남자. ○ 횡단보도 건너편에 있는 첫사랑 그녀와 마주친다.

24.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과 ㉡은 모두 내재 음향이면서 비동시 음향이다.
- ② ㉠과 ㉡은 모두 외재 음향이면서 비동시 음향이다.
- ③ ㉠과 ㉡은 모두 내재 음향이면서 동시 음향이다.
- ④ ㉠은 동시 음향이고, ㉡은 비동시 음향이다.
- ⑤ ㉠은 외재 음향이고, ㉡은 내재 음향이다.

25.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영화에 음향을 활용하기 위한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 결의에 찬 모습과 어울리는 배경 음악을 넣어 인물의 정서를 표현한다.
- ② B에 인물의 내레이션을 삽입하여 그의 생각이 직접적으로 드러나게 한다.
- ③ C에서 소리를 일시적으로 없애 인물이 처한 상황에서 오는 극도의 절망감에 관객이 빠져들게 한다.
- ④ A와 D에 동일한 배경 음악을 사용하여 공간의 동일성이 드러나게 한다.
- ⑤ B와 C에 유사한 자동차 경적음을 겹치게 하여 두 장면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한다.

[26~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투입량을 계속 늘려 나가면 어느 단계에 가서는 산출량의 증가율이 줄어들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 왔다. 이것을 ‘수확 체감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곡물이나 철과 같은 재화가 중심이 되었던 산업 사회 경제에서는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물론 투입 요소가 늘어남에 따라 산출량도 초기에는 늘어날 수 있으나, 시간이 갈수록 점점 노동의 질이 떨어질 가능성도 많고, 노동의 조직화나 경영의 효율성도 한계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은 수확 체감이라는 벽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수확 체감의 법칙이 작용하게 되면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적절한 선에서 생산 규모를 설정할 것이기 때문에, 이 제품의 시장에는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여러 기업들이 들어와 경쟁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좋은 제품을 좀 더싼 가격에 내놓을 수 있는 기업이 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하지만 정보 기술 시대에 들어서면서 투입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산출량이 그 이상으로 증가하는 ‘수확 체증의 법칙’이 여러 산업 분야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것은 생산의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산출물의 평균 비용*이 감소하는 현상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특히 정보 기술 시대를 대표하는 정보 산업, 소프트웨어 산업, 문화 산업, 서비스 산업 등은 초기 개발 비용은 많이 들지만 생산량이 증가해도 추가 비용은 거의 들지 않기 때문에 전형적인 수확 체증의 현상이 나타나는 산업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수확 체증의 현상은 이와 같은 공급의 측면뿐 아니라 수요의 측면에서도 찾을 수 있다. 수요 측면에서의 수확 체증 현상은 흔히 ‘네트워크 외부성’으로 인해 생긴다. 네트워크 외부성이란 어떤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제품의 가치도 덩달아 커져서 그 제품을 생산한 기업에게 대가 없이 의도치 않은 혜택을 주게 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네트워크 외부성이 나타날 경우, 이미 시장을 선점한 기업은 제품의 생산을 계속 늘려가도 수확 체증의 법칙에 따라 이윤이 줄어들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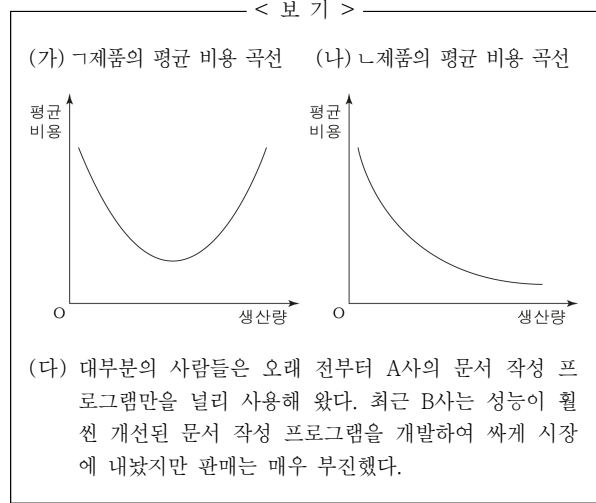
이처럼 수확 체증의 법칙이 작용하는 시장에서 기업은 시장 규모가 허락하는 선까지 생산 규모를 확대하면서, 경쟁 기업을 시장에서 완전히 몰아내려고 할 것이다. 또한 네트워크 외부성이 나타나면 시장을 선점한 기업이 상당히 유리한 지위를 갖게 되어, 신규 기업은 제품의 질이나 가격 면에서 경쟁력을 갖췄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살아남기가 매우 어렵게 될 것이다. 이러한 시장에서는 품질이나 가격에 의한 경쟁이 힘을 잃게 된다. 이 때문에 정보 기술 시대에는 산업 사회 시대의 방식에 따라 경제를 예측하고 설명하는 것이 어려워지게 되었다.

* 평균 비용: 상품 한 단위를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

26. 밑글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은 것은?

- ① 수확 체감의 법칙이 나타나는 이유
- ② 정보 기술 시대를 대표하는 산업 분야
- ③ 정보 기술 관련 산업에서 초기 비용이 많이 드는 이유
- ④ 산업 사회의 시장에서 경쟁이 일어나는 일반적인 양상
- ⑤ 산업 사회 시대의 방식으로 정보 기술 시대의 경제를 예측하기 어려운 이유

27.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가)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제품의 경우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적절한 선에서 생산 규모를 설정하겠군.
- ② (나)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제품의 경우 시장 규모가 허락하는 선까지 생산량을 최대한 늘리겠군.
- ③ (다)에서 사람들이 널리 사용하고 있는 A사의 제품에는 ‘네트워크 외부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겠군.
- ④ (다)에서 A사의 제품에는 (나)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겠군.
- ⑤ (다)에서 B사 제품의 판매가 부진했던 이유는 (가)와 같은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겠군.

[28~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빅 데이터(Big Data)란 기존의 일반적인 기술로는 관리하기 곤란한 대량의 데이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특성은 데이터의 방대한 양과 다양성 및 데이터 발생의 높은 빈도로 요약된다. 이전과 달리 특수 학문 분야가 아닌 일상생활과 밀접한 환경에서도 엄청난 분량의 데이터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소프트웨어 기술의 발달로 이전보다 적은 시간과 비용으로 대량의 데이터 분석이 가능해졌다. 또한 이를 분석하여 유용한 규칙이나 패턴을 발견하고 다양한 예측에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빅 데이터 처리 기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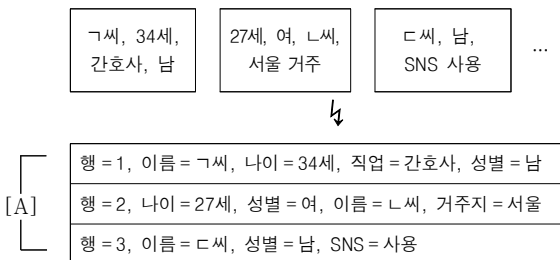
이러한 빅 데이터의 처리 및 분류와 관계된 기술에는 NoSQL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의한 데이터 처리 기술이 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RDBMS)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RDBMS에서는 특정 기준이 제시된 데이터 테이블을 구성하고 이 기준을 속성으로 갖는 정형적 데이터를 다룬다. 고정성이 중요한 시스템이므로 상호 합의된 데이터 테이블의 기준을 자의적으로 추가, 삭제하거나 변용하는 것이 쉽지 않다. 또한 데이터 간의 일관성과 정합성^{*}이 유지될 것을 요구하므로 데이터의 변동 사항은 즉각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그림 1>은 RDBMS를 기반으로 은행들 간의 상호 연동되는 데이터를 정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데이터 테이블의 가상 사례이다.

한예금 씨의 A 은행 거래내역

㉠ ...	거래일자	입금액	출금액	잔액	거래내용	기록사항	거래점
㉡ ...	2013.10.08.	30,000		61,217	이체	나저축	B 은행
㉢ ...	2013.10.09.		55,000	6,217	자동납부	전화료	A 은행
㉣ ...							

<그림 1> RDBMS에 의해 구성된 데이터 테이블의 예

NoSQL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특정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비정형적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 시스템에서는 선형으로 데이터의 특성을 나열하여 정리하는 방식을 통해 데이터의 속성을 모두 반영하여 처리한다. <그림 2>는 NoSQL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으로 자료를 다루는 방식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2> NoSQL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의한 데이터 처리의 예

<그림 2>에서는 '이름=', '나이=', '직업='과 같이 데이터의 속성을 표시하는 기준을 같은 행 안에 포함시킴으로써 데이터의 다양한 속성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처리된 데이터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 시스템은 데이터와 관련된 정보의 변동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우며, 이러한 변화가 즉각적으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특성을 지닌다.

* 정합성: 논리적 모순이 없는 성질이나 상태.

28. 위글의 설명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간의 흐름에 따른 빅 데이터 개념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다.
- ② 빅 데이터를 다루는 기술을 기존 기술과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다.
- ③ 빅 데이터가 활용되는 유형을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 ④ 다양한 사례를 들어 빅 데이터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⑤ 빅 데이터의 중요성을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29.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행에 제시된 것은 은행 거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기준이다.
- ② ㉠행의 각 항목은 'A 은행'의 개별 지점에서 임의로 변경하기 어렵다.
- ③ ㉡행의 거래로 인해 발생한 데이터는 '나저축'의 'B 은행 데이터베이스'에도 즉시 반영된다.
- ④ ㉡행과 ㉢행의 데이터는 특정 기준을 속성으로 갖는 정형적 데이터이다.
- ⑤ ㉣행에 기준과 다른 항목을 지닌 데이터가 올 경우 ㉠행의 기준을 즉시 변경하여 데이터를 처리한다.

30. [A]에 'ㄱ씨의 취미는 독서이다.'라는 정보를 추가하고자 한다. 위글에 비추어 그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1행의 '성별 = 남' 다음에 '취미 = 독서'를 기록한다.
- ② 1행과 2행 사이에 행을 삽입하여 '취미 = 독서'를 기록한다.
- ③ 3행 다음에 행을 추가하여 '행 = 4, 이름 = ㄱ씨, 취미 = 독서'를 기록한다.
- ④ 기준에 맞는 데이터 테이블을 구성하여 해당란에 '독서'를 기록한다.
- ⑤ 1행에 '독서'라는 속성을 반영할 수 있는 기준이 없으므로 기록 자체가 불가능하다.

[31 ~ 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고운 섬들 좋은 흙에 촘촘히 심어 내니
봄 삼월 지난 뒤에 **향기 없다** 웃지 마소.
취한 나비 미친 벌이 따라올까 두려워하네.
정숙한 기상을 나뭇가에 뉘 벗할까.
옥난간 기나긴 날에 보아도 다 못 보아,
창문을 반쯤 열고 아이를 불러 시켜,
다 핀 꽃을 캐어다가 상자 안에 가득 담고,
바느질을 끝낸 후에 안채에 밤이 들어
환한 촛불 아래 가깝게 다가앉아

㉠ 흰 백반을 갈아 비수어 옥 같은 손 가운데 곱게 곱게 캐어 내니

파사국(波斯國)* 임금의 산호 공전을 해쳐 놓은 듯,
궁궐 붉은 도마뱀을 절구에 뿔아 놓은 듯,
섬섬옥수 열 손가락을 수실로 감아 내니,
㉡ 종이 위로 붉은 꽃물 미미하게 스미는 듯
미인의 열은 뺨에 붉은 안개 끼이는 듯
㉢ 단단히 묶은 모양 비단에 옥글씨로 쓴 편지를 왕모(王母)*에게 부치는 듯.

봄잠을 늦게 깨어 차례로 풀어 놓고,
거울을 대하여 눈썹을 그리려니
㉣ 난데없이 붉은 꽃이 가지에 붙어 있는 듯
손으로 잡으려 하니 어지럽게 흩어지고
입으로 불러 하니 안개가 섞여 가리는구나.
친구를 서로 불러 즐겁게 자랑하고,

㉤ 쪽 앞에 나아가서 두 빛을 비교하니
쪽 앞에서 나온 푸른 물이 쪽빛보다 푸르단 말, 이 아니 옳
겠는가?

은근히 풀을 매고 돌아와 누웠더니
녹의홍상 한 여인이 표현히 앞에 와서
웃는 듯 찡그리는 듯 사례(謝禮)하는 듯 하직하는 듯.
어렴풋이 잠을 깨어 곰곰이 생각하니,
아마도 꽃귀신이 내게 와 하직한 듯.
창문을 급히 열고 꽃수풀을 살펴보니
땅 위에 붉은 꽃이 가득히 수놓았다.
암암이 슬퍼하고 낱알이 주위담아 꽃에게 말 붙이기를
그대는 한스러워 마소 해마다 꽃빛은 의구하니
하물며 **그대 자취 내 손에 머물렀지**
동산의 도리화는 잠깐의 봄을 자랑 마소.
이십 번 꽃바람에 적막히 떨어진들 뉘라서 슬퍼할까.
규중에 남은 인연 그대 한몸 뿐이로세.
봉선화 이 이름을 누가 지었는가, 이리하여 지었구나.

- 작자미상, 「봉선화가」 -

* 파사국(波斯國) : 페르시아.

* 왕모(王母) : 신선이 산다는 곤륜산의 선녀인 서왕모.

3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일상적 소재를 활용하여 삶에 대한 반성을 이끌어내고 있다.
- ② 과거와의 대비를 통해 상황에 대한 회의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며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④ 감정을 절제한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의 객관적 태도를 부각하고 있다.
- ⑤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을 확대해 가며 대상의 변화 과정을 표현하고 있다.

32. ㉠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과정을 제시하여 손톱에 봉선화 물을 들이는 모습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② ㉡ : 비유적 표현을 반복하여 붉은 빛이 스며드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 ③ ㉢ : 미화된 표현을 통해 봉선화 물들이기에 기운인 화자의 정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④ ㉣ : 역동적인 묘사를 통해 봉선화의 속성을 파악하기 어려움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⑤ ㉤ : 관용적 표현을 사용하여 손톱에 물든 봉선화 물의 붉은 빛을 강조하고 있다.

33. 윗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시적 화자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봉선화의 '향기 없'는 속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군.
- ② 시적 화자는 '녹의홍상 한 여인'이 등장하는 꿈을 통해 봉선화의 낙화를 예감하고 있군.
- ③ 시적 화자는 '그대 자취 내 손에 머물렀'음을 근거로 '그대는 한스러워 마소'라고 하며 봉선화를 위로하고 있군.
- ④ 시적 화자는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쉽게 떨어지는 '동산의 도리화'에서 무상감을 느끼고 이를 슬퍼하고 있군.
- ⑤ 시적 화자는 '규중에 남은 인연 그대 한몸 뿐이로세'라고 말함으로써 봉선화에 대한 각별한 정을 드러내고 있군.

[34~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리운 그의 얼굴 다시 찾을 수 없어도
화사한 그의 꽃
산에 언덕에 피어날지어이.

그리운 그의 노래 다시 들을 수 없어도
맑은 그 숨결
들에 숲속에 살아갈지어이.

쓸쓸한 마음으로 들길 더듬는 행인(行人)아.

눈길 비었거든 바람 담을지네.
바람 비었거든 인정 담을지네.

그리운 그의 모습 다시 찾을 수 없어도
울고 간 그의 영혼
들에 언덕에 피어날지어이.

- 신동엽, 「산에 언덕에」 -

3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색채의 대비를 통해 시적 정황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시간의 흐름에 따른 공간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 ③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여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④ 명사로 시상을 마무리하여 시적 여운을 자아내고 있다.
- ⑤ 화자 자신의 경험을 서사적으로 구성하여 제시하고 있다.

35.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연은 ‘~르지어이’를 통해 화자의 기대와 소망을 드러내면서 시상을 열고 있다.
- ② 2연은 ‘그’의 이미지를 변주하여 1연의 내용을 반복함으로써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③ 3연은 ‘행인’에게 말을 건네는 형식으로 상황에서 비롯된 정서를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있다.
- ④ 4연은 ‘비었거든’과 ‘담을지네’를 호응시켜 화자가 처한 상황을 이겨내고자 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⑤ 5연은 수미상관을 통해 자연과 하나가 된 화자의 모습을 부각하며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36. <보기>의 맥락에서 윗글을 해석한다고 할 때, 시어(구)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가) 사랑했던 연인과 사별한 후 그 임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을 노래한 시로 읽을 경우

(나) 4·19 혁명 과정에서 독재 권력의 억압에 항거해 자유를 외치다 목숨을 잃은 학생들을 추모하며 그들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 시로 읽을 경우

- ① (가)의 맥락에서 보면, ‘그리운’은 개인적인 경험과 관련된 정서가 표출된 것이겠군.

- ② (가)의 맥락에서 보면, ‘꽃’은 세상을 떠난 임에게 바치고 싶었던 마음을 상징한 것이겠군.
- ③ (나)의 맥락에서 보면, ‘그의 노래’는 시대적인 요구가 담긴 목소리라고 할 수 있겠군.
- ④ (나)의 맥락에서 보면, ‘울고 간’은 억압적 현실로 인한 희생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겠군.
- ⑤ (가), (나) 모두의 맥락에서 ‘다시 찾을 수 없어도’는 대상이 부재하는 상황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겠군.

[37~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땅 투기에 성공해 기업가로 변신한 최 사장은 익삼을 통해 동네의 저수지 관리를 동네 건달 종술에게 제안한다. 종술은 완장을 준다는 말에 제안을 승낙한다.

버스가 이리시를 출발할 당시부터 사람들은 이상한 완장을 찬 웬 그들먹한 사내한테 관심을 쏟기 시작했다. 인상마저 남달리 험악하게 생긴 그가 버스에 오르자마자 거만한 눈초리로 내부를 한 바퀴 둘러본 다음 빈 자리를 찾아 앉았을 때 사람들은 우선 주눅부터 들었다.

“실례합니다만…….”

버스가 이리시의 경계를 벗어나 완연한 시골길로 들어설 무렵에야 겨우 옆자리의 청년은 용기를 내었다.

㉠ “선생님은 직업이 무엇인가요?”

종술로서는 난생 처음 들어 보는 선생님 소리였다. 그러나 그는 통명스럽게 쏘아붙였다.

“실례하는 줄 알면서 묻기는 왜 물어?”

청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임씨, 임씨가 말은 그 감독이 뭇이다요?”

종술은 얼른 소리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알 만한 얼굴이었다. 소재지에서 이발관을 하는 사람이었다. 아직도 소식이 깡통인 그에게 종술은 대뜸 눈알을 허영게 부라렸다.

“여보쇼 장씨, 당신 말버릇 조개 세탁하야 쓰겠어! 내가 장씨 친구여 뭐여? 어따 대고 함부로 임씨, 임씨여?”

그러자 ㉡ 이발관 사장 또한 단박에 침 먹은 지네요 땃진 먹은 배앰푼이 되었다. 종술이 어떤 위인인지는 소재지에서도 익히 아는지라 장씨는 가급적이면 그 성깔을 덧들이지 않는 편이 자기 신상에 이롭다고 판단하고는 얼굴이 시뻘개질 정도로 만좌중에 당한 무안을 혼자서 삭이느라고 느닷없는 생명을 잃기 시작했다. 이발할 때마다 목덜미에 면도칼을 들이대고도 오히려 장씨 쪽에서 덜덜 손이 떨리는 유일한 손님이 바로 종술이었기 때문이다.

거푸 두 사람이 완장을 찬 웬 거물한테 차례로 당하고 나서부터 버스 안의 승객들은 완전히 오가리가 들어 버렸다. ㉢ 그들은 마치 훈육 주임의 감시 하에 수학여행을 나선 학생들이나 다름없었다. 일행끼리 꼭 필요한 대화를 나누면서도 언제나 떠들썩한 시골 버스의 분위기답지 않게 목소리를 잔뜩 낮추어 완장의 눈치를 흘끔흘끔 살피는가 하면, 담배를 꺼내 입에 물면서도 종술의 완장에 자꾸만 신경이 쓰이는 바람에 선뜻 불을 댕기기를 망설일 지경이었다.

(중략)

“지금이 어느 땐고 하면, 날이 너무 가물어서 농민들 눈에서는 피눈물이 맺히는 판국입니다요! 그런데 사장님이 이렇게 호화판으로 놀이하시는 걸 보고 농민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요?”

최 사장을 상대로 종술은 무엄하게도 일장의 훈시를 시작했다. 그러자 대북독의 익삼 씨가 불쑥 책방을 걸어 왔다.

㉔ “니깃놈이 이놈아, 농민들 피눈물 생각해서 이놈아, 그 사람들한테 오늘날까장 그 행패 다 떨어 왔냐, 이놈아!”

익삼 씨의 존재를 깡그리 무시한 채 종술은 다시 최 사장을 상대했다.

“하지만 좋습니다. 다 좋다니께요! 사장님이 재미지게 놀다 가시는 것이사 지가 무슨 권리로 막겠습니까마는, 다 허시드라도 낚시질만은 절대로 안 되누만이라우!”

㉕ “이 동네는 누가 사장이고 누가 사원인지 위아래도 알 수가 없네요.”

원 양이 참다못해 매섭게 쏘아붙였다. 비로소 최 사장은 내가 이려고만 있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는 먼저 헛기침으로 목청부터 가다듬었다.

“너 이놈 임가야!”

“말썽 낫추시지요, 사장님.”

“너를 이 저수지 감시원으로 취직시켜 준 사람이 누구냐?”

“그것이사 사장님이지 누구겠습니까요.”

“그런 줄 알면서 사장이 하는 일을 니가 막는단 말이나?”

“사장님이 정 그렇게 나오신다면 저도 한 말썽 묻겠습니다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낚시질을 막으라고 저한테 명령하신 낭반이 누구니까?”

최 사장은 하도 기가 막혀서 허허 웃을 수밖에 없었다.

“웃으실 일이 아닙니까요!”

“이놈아, 그것이사 따른 사람들 이야기지 누가 너보고 사장 까장 단속하랬냐? 내가 내 재산 조개 축내는 것도 니 눈엔 도적질로 보더라 말이나?”

“그게 아니지라우! 따른 사람보담도 사장님이 손수 좋은 뽕을 뵈야야 녀들도 따르지, 만약 안 그러고 삼동네 이웃이 개나 걸이나 죄다 나서서 월척을 낚기로 뽕비는 날이면 그 뒷일을 사장님이나 지가 무신 재주로 감당하겠냐 이런 말썽이지라우!”

[A] 종술은 터무니없는 억지소리를 고집스럽게 밀고나갔다. 그와 같은 행동의 이면에는 물론 부월이하고의 감정이 사단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는 또 아니었다. 널금 저수지와 거기에 딸린 모든 부속물 하나하나를 그는 마치 자기 소유인 양, 제 살점이나 다름없이 아끼고 사랑하고 있었다. 것처럼 끔찍한 저수지를 갈랐은 사장 나부랑이와接客업소의 여종업원 떨거지들로 하여금 손끝 하나라도 건드리게 하고 싶지 않은 까닭이었다.

그는 최 사장 일행의 행동을 자신의 인격이나 자존심에 가해지는 일종의 모독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네. 이노움, 니놈이 감히 누구를 도적놈 취급이나!”

드디어 최 사장의 입에서 노성이 벽력같이 뽕어나왔다.

“가담히 누구를 도적놈 취급이나야!”

대북독에서 지르는 익삼 씨의 고향이 메아리처럼 공허하게 그 뒤를 따랐다.

“너는 이놈아, 오늘날로 감시원직에서 모가지다!”

- 윤홍길, 「완장」 -

37.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정적인 배경을 통해 사건의 전개 방향을 암시하고 있다.
- ② 사투리와 비속어를 사용하여 사실적인 느낌을 살리고 있다.
- ③ 과거와 현재를 반복 교차하여 사건에 입체감을 부여하고 있다.
- ④ 독백과 대화를 통해 인물의 내면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⑤ 이질적인 시선을 가진 서술자들을 통해 사회 현실을 총체적으로 그리고 있다.

38. ㉑~㉕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㉑: 질문을 통해 상대방에 대한 호기심을 드러내고 있다.
- ② ㉒: 관용적 표현으로 인물이 느낀 곤혹스러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③ ㉓: 다른 상황에 빗대어 버스 안의 위축된 분위기를 표현하고 있다.
- ④ ㉔: 과거 행적을 들어 상대방의 언행에 나타난 모순을 지적하고 있다.
- ⑤ ㉕: 우회적인 표현으로 인물이 느끼고 있는 불안함을 드러내고 있다.

39.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이 작품은 종술이라는 인물의 행태와 몰락을 보여주고 있다. 종술의 어리석은 행동과 그와 관련된 사건을 통해 작가는 도취되기 쉬운 권력의 속성과 부질없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작은 권력을 나누어 주고 진짜 권력을 휘두르는 자들의 횡포를 은연중에 비판하고 있다.

- ① 종술이 저수지 감시원이 된 상황은 작은 권력을 위임 받은 것에 해당하겠군.
- ② 종술이 버스에 탄 사람들에게까지 욕박지르는 모습은 권력에 도취된 인물의 심리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겠군.
- ③ 종술이 최 사장 일행의 행동을 자신에 대한 모독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것이겠군.
- ④ 최 사장이 종술로 하여금 법에 따라 불법 어로 행위를 단속하게 하는 모습은 권력의 부질없음을 보여주는 것이겠군.
- ⑤ 최 사장이 자신의 낚시질은 합리화하고, 노성을 지르며 종술을 해고하는 모습은 진짜 권력을 가진 자들의 횡포에 해당하겠군.

40.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인물의 내면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② 반전을 통해 상황이 전환될 것을 암시하고 있다.
- ③ 사건의 분위기를 다른 방향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 ④ 반어적 말하기를 통해 해학적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 ⑤ 상징적 소재를 통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하고 있다.

[41 ~ 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전우치는 명나라 황제를 도술로 속여 황금 들보를 바치게 하고 조선으로 떠난다. 화가 난 명나라 황제는 조선에 전우치를 잡아 바치라고 명한다.

“소신은 전우치입니다. 전하께옵서 소신 때문에 근심을 과히 하사 소신의 아비를 잡아 가두시기에 소신이 탄원을 하고자 하여 왔사오니, 엎드려 원하옵건대 전하께서는 소신 아버지의 죄를 용서하시고 직위를 올려서 강원 감사를 제수하옵시면, 소신이 대국에 잡혀가서 무사히 감당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소신을 전하께서 아무리 잡으려 하실지라도 잡지 못할 것이옵니다.”

임금이 듣고 크게 놀라 물었다.

“네가 우치라 하니, 대국에 가서 무슨 장난을 하였기에 황제가 조서(詔書)를 내려 우리나라에까지 폐가 되게 하는가?”

우치가 대답했다.

“소신이 황제를 속인 이유는 님이 아니오라, 우리 조선을 소국이라 하여 매양 업신여겨서였습니다. 소신이 비록 어리고 철이 없사오니 그 일에 통분하여, 대국에 들어가 이러이러한 일로 황제를 속이고 재주를 발휘하여 대국의 위엄을 꺾으려 한 것일 뿐, 다른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소신을 아무리 잡으려 하여도, 대국의 힘으로는 잡을 길이 없으즉 분함을 이기지 못해 본국으로 사신을 보낸 것이옵니다.”

임금이 듣고 말했다.

“너의 재주가 그러하면 한번 구경하고자 하니 시험하여 특별히 재주를 보여 주면 네 원대로 해 주겠다.”

우치가 아뢰기를,

“신의 재주를 구경하시겠다면 시험하겠습니다마는 전하께서 놀라실까 하옵니다.”

임금이 말했다.

“그것은 염려하지 말고 시험하라.”

우치가 재주를 부리는데, 이윽고 천지가 자욱하며 지척을 분별치 못하게 되었다. 임금이 괴이히 여기다가 주위를 둘러보니, 갑자기 맑은 바람이 일어나며 구름과 안개가 걷히고 날씨가 명량하였다.

(중략)

이어 피리 소리 한 곡조에 사면으로부터 선녀와 선관들이 무수히 다가오고 있었다. 임금이 그제야 기이하다 싶어 자세히 보니 바람이 그치며 물결이 잔잔한데, 그 선관 선녀들이 흑 표주박도 타고, 흑 연잎도 타고, 흑 고래도 타고, 흑 수레도 타고 들어오더니 배를 한데 대고 말했다.

“조선국 왕은 우리를 모르십니까? 첫째는 일각료요, 둘째는 이태백이요, 그 나머지는 신선들 아무아무입니다. 왕이 인간 세상에 내려와 연기를 쏘이더니 눈이 어두워져서 전생에 함께 놀던 벗을 모르도다.”

선녀를 명하여 술을 청해 올리기에, 임금이 웬일인지 모르고 술을 받아 마시니, 정신이 상쾌하여 전생 일이 생각났다. 전생의 태을선(太乙仙)으로 인간 세상에 귀양 온 일과 그때 같이 놀던 벗들이 그제야 생각났다. 임금이 반겨 손을 잡고 그간 그리던 심정을 이야기하니 모든 선관이 대답했다.

“태을선은 인간 세상의 재미 어떠한고? 손오공의 도술로 이곳에 와서 옛날 친구를 만나니 우치의 덕이로다.”

임금이,

“물노니, 우치는 어떠한 사람이고?”

하니, 선관이 말했다.

“우치는 손오공이라. 하늘나라와 지하와 수궁을 모두 출입하는 재주를 품었으니 업신여기지 말라. 우리는 때가 늦어서 돌아가니 이후에 다시 만나자.”

이어 잔치 끝내는 노래를 피리로 불며 이별하였다. 임금이 바라보니, 선관 선녀들이 각각 배를 띄우고 가는데, 풍량이 크게 일어나고 채색 구름이 두르니, 지척을 분별할 수 없어 가는 곳을 알지 못하였다. 이윽고 구름과 안개가 걷히며 햇빛이 빛나니, 임금이 그제야 살펴보았다. 그 사이에는 만첩태산이 둘러 있고 층암절벽이 반공에 달렸는 듯한데, 굽은 노송은 광풍에 흐트러져 넓은 바위를 덮은 가운데 자신이 홀로 앉아 있었다. 임금이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아까 풍랑 중에 죽을 것을 선동이 구하여 살아났더니, 알지 못하겠도다, 어찌 이곳에 왔는고? 그러나 인적이 없고 산세는 험하니 가히 슬프도다.’ 하며, 장차 돌아갈 길이 막연하여 탄식하고 있었다. 뜻밖에 백호가 입을 벌리고 달려들기에, 임금이 놀라 엎드려졌다. 그때 선녀들이 놀라 모셔다가 붙들어 앉히자, 임금이 다시 정신을 차려 보니, 자신은 전상(殿上)의 왕좌에 앉아 있는데, 주위의 여러 신하가 시위하고, 우치가 땅에 엎드려 있었다. 임금이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반드시 잠을 들어 괴이한 춘몽을 꾸었도다.’ 하시고, 신하들더러 물었다.

“과인이 그 사이에 잠을 들었는가?”

여러 신하가,

“전하께서 잠드신 적 없사옵니다.”

하고 아뢰었지만, 임금이 그런 줄을 알지 못하였다. 우치가 머리를 조아리며 사례하여 아뢰었다.

“전하께서는 영주 삼신산(三神山)을 보시니 어떠하옵디까? 그러하오나, 바다 가운데서 풍랑에 고생을 하시고 봉래산 바위 위에서 백호를 만나시니 두렵지 아니하셨습니까?”

임금이 그제야 우치의 도술에 속은 줄 알고, 크게 칭찬하기를,

“너의 재주는 진실로 고금에 없도다.”

하고 신하들에게 자신이 겪었던 일을 자세히 이야기하니 다 듣고 모두가 신통하게 여겼다.

이때, 임금이 하교하되,

“이 애를 불가불 대국에 잡아 보낼 터이니 제 원대로 할 수밖에 없다.”

하고, 전중보를 즉시 석방해 임금의 뜻을 전하고는 강원 감사를 제수하였다.

— 작자미상, 「전우치전」 —

41. 윗글의 서술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여러 가지의 사건이 역순행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 ② 인물의 외양 묘사를 통해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서술자가 개입하여 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④ 사건이 진행됨에 따라 인물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 ⑤ 인물의 대화와 행동을 중심으로 서사가 진행되고 있다.

42. 윗글의 내용으로 보아, [A]에 나타난 ‘우치’와 ‘임금’의 주된 협상 전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우치와 임금은 모두 상대방이 원하는 바를 확인한 후, 그 절충점을 찾아 타협하고자 한다.
- ② 우치는 자신의 능력을 부각하여, 임금은 자신의 권위를 앞세워 각자 자신이 원하는 바를 상대방이 수용하도록 강요한다.
- ③ 우치와 임금은 상대방의 주장에 문제가 있는 점을 지적하며, 각자 자신이 원하는 바를 상대방이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④ 우치는 자신이 원하는 바와 상대방이 원하는 바의 교환을 요구하고, 임금은 수락의 조건으로 상대방의 능력을 확인하고자 한다.
- ⑤ 우치는 상대방에게 자신이 원하는 바를 들어달라고 공손히 요청하고, 임금은 먼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상대방이 수용하라고 명령한다.

4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고전소설 중에는 초월적 능력을 지닌 인물이 도술을 사용하여 ‘현실 세계’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환상 세계’를 만드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환상 세계는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거나 거기에서 벌어지는 일을 현실 세계의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환상성을 지닌다. 그리고 한편으로 시공간이나 인물, 사건 등의 이어짐을 통해 작품 속의 현실 세계와 관련을 맺는다.

- ① 우치는 자신의 초월적 능력을 발휘하여 ‘현실 세계’에서 경험할 수 없는 ‘환상 세계’를 만들어냈군.
- ② ‘환상 세계’에서도 임금이 여전히 조선의 왕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현실 세계’와 관련을 맺고 있군.
- ③ 우치의 도술로 임금이 ‘환상 세계’를 경험한 일을 ‘현실 세계’의 신하들이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환상성을 확인할 수 있군.
- ④ ‘환상 세계’의 경험이 임금에게 ‘현실 세계’의 우치를 인정하도록 만드는 실마리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건의 이어짐을 확인할 수 있군.
- ⑤ 임금이 ‘환상 세계’에서 우치를 만나 벗이 된 일을 ‘현실 세계’에서 잊어버리고 있다는 점에서 환상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볼 수 있군.

[44~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벗나무 아래에 굽어모은 낙엽의 산더미를 모으고 불을 붙이면, 속에 갇혀서 푸스푸스 타기 시작해서 가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바람이나 없는 날이면 그 연기가 낮게 드리워서 어느덧 뜰 안에 자욱해진다. 낙엽 타는 냄새같이 좋은 것이 있을까? 갓 볶아 낸 커피의 냄새가 난다. 잘 익은 개암 냄새가 난다. 갈퀴를 손에 들고는 어느 때까지든지 연기 속에 우뚝 서서, 타서 흩어지는 낙엽의 산더미를 바라보며 향기로운 냄새를 맡고 있노라면 별안간 맹렬한 생활의 의욕을 느끼게 된다. 연기는 몸에 배서 어느 결엔지 옷자락과 손등에서도 냄새가 나게 된다.

나는 그 냄새를 한없이 사랑하면서 즐거운 생활감에 잠겨서는 새삼스럽게 생활의 제목을 진귀한 것으로 머릿속에 떠올린다. 음영과 윤택과 색채가 빈곤해지고 초록이 전혀 그 자취를 감추어 버린, 꿈을 잃은 허전한 뜰 한 복판에 서서 꿈의 껍질인 낙엽을 태우면서 오로지 생활의 상념에 잠기는 것이다. 가난한 벌거숭이의 뜰은 벌써 꿈을 꾸기에는 적당하지 않은 탓일까? 화려한 초록의 기억은 참으로 멀리 까마득하게 사라져 버렸다. 벌써 추억에 잠기고 감상에 젖어서는 안 된다.

가을이다! 가을은 생활의 시절이다. 나는 화단의 뒷자리를 깊게 파고, 다 타 버린 낙엽의 재를 - 죽어 버린 꿈의 시체를 - 땅 속 깊이 파묻고 엄연한 생활의 자세로 돌아서지 않으면 안 된다. 이야기 속의 소년같이 용감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전에 없이 손수 목욕물을 길고, 혼자 불을 지피게 되는 것도 물론 이런 감각에서부터다. 호스로 목욕통에 물을 대는 것도 즐겁거니와 고생스럽게 눈물을 흘리면서 조그만 아궁이로 나무를 태우는 것도 기쁘다. 어두컴컴한 부엌에 웅크리고 앉아서 새빨강게 피어오르는 불꽃을 어린아이의 감동을 가지고 바라본다. 어둠을 배경으로 하고 새빨강게 타오르는 불은 그 무슨 신성하고 신령스런 물건 같다.

얼굴을 붉게 태우면서 긴장된 자세로 웅크리고 있는 내 팔은 흡사 그 귀중한 선물을 프로메테우스에게서 막 받았을 때의 그 태곳적 원시의 그것과 같을는지 모른다.

나는 새삼스럽게 마음속으로 불의 덕을 찬미하면서 신화 속 영웅에게 감사의 마음을 바친다.

좀 있으면 목욕실에는 자욱하게 김이 오른다. 안개 깊은 바다의 복판에 잠겼다는 듯이 동화의 감정으로 마음을 장식하면서 목욕물 속에 전신을 깊숙이 잠글 때 바로 천국에 있는 듯한 느낌이 난다. 지상 천국은 별다른 곳이 아니라, 늘 들어가는 집 안의 목욕실이 바로 그것인 것이다. 사람은 물에서 나서 결국 물속에서 천국을 구하는 것이 아닐까?

- 이효석, 「낙엽을 태우면서」 -

45.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 사소한 경험이 때로는 우리 삶의 의미를 되돌아보게 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 새로운 삶의 자세를 갖도록 만들어 주는 경우가 있다.

- ① 계절과 관련된 ㉠을 통해 '화려한 초록의 기억'이 사라져 버린 삶의 의미를 되돌아보고 있다.
- ② '갓 볶아낸 커피의 냄새', '잘 익은 개암의 냄새' 등 후각적인 심상을 통해 ㉠에서 느끼는 즐거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은 '맹렬한 생활의 의욕'을 별안간 느끼게 된 것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
- ④ ㉡은 '전에 없이 손수 목욕물을 길고, 혼자 불을 지피게 되는 것'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 ⑤ ㉡은 '태곳적 원시'의 세계로 되돌아가고 싶은 원초적 욕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44. 윗글에 드러난 표현상의 특징이 아닌 것은?

- ① 관찰한 내용을 묘사하고 있다.
- ② 비유를 통해 표현 효과를 높이고 있다.
- ③ 여러 가지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다.
- ④ 의문문으로 표현 방식에 변화를 주고 있다.
- ⑤ 짧고 간결한 문장으로 사색을 전개하고 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